

일본의 지역친화형 노인복지시설 사례를 통해서 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계획 방향

Review of Planning on the Congregate Nursing Homes Based on the Case Study for the
Local Friendly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Japan

박정아* 김선태**
Park, Jung-a Kim, Sun-T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best examples from Japan to derive spati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the field survey method for 6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Japa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riendly facilit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ince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are separated from local community and facility plans are large-scaled and unified which are disconnected from local area, this research set aging in community, multi-function, diversity, and intergeneration into the concept that is necessary for local friendly facilities. Secondly, residential environment plan's basic directions are 1) plan that minimizes facilities-like atmosphere, 2) spatial plan that focuses on the elderly dignity and privacy, 3) comfortable and enjoyable communal living space plan, 4) local friendly and communicating plan, 5) plan that minimizes staff's care giving burden. Thirdly, the rooms necessary for local friendly facility model are composed of bedroom, dining room, kitchen, living room, garden, toilet, laundry room, bathroom, corridor, and office based on the legal installation standards.

Keywords : the Elderly, Local Friendly, Senior Congregate Nursing Home, Residential Environment

주요어 : 노인, 지역친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거주환경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노인주거정책의 방향은 지역사회보호 이념의 확산으로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존주택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의 지속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노인들도 나중에는 노인시설 및 노인전용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거주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의 노인들은 대부분 지리적인 활동영역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사회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생활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함으로써 그동안 단위주택에 국한되어왔던 주택내부의 물리적 요소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계한 범위의 주거환경과의 관계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특히 환경적 교류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환경적 세팅을 제

공해 줄 수 있는 노인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국의 개발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노인의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시설중심 서비스보다는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한 시설이지만,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자립적인 노인들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설립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²⁾의 경우 거주노인들의 행동반경은 주거환경권으로 현저히 축소되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 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넘어 구체적인 거주환경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우수선진사례를 방문 조사하여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시설의 계획 및 운영방법 및 거주노인에게 바람직한 거주환경의 공간별 계획 요점을 도출하고, 시설

* 정희원, 원광대학교 사범대 가정교육과 조교수, 이학박사

** 정희원, 생활환경디자인 연구소,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교신저자 : sun0842@hotmail.com)

본 논문은 2013학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한 연구(지역친화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모델 개발연구)의 일부임.

2) ,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 5-9명이 거주하는 소규모시설이다.

의 운영상 문제시 되는 제도적, 공간적 요구 및 현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친화형 노인주거복지 시설 사례를 조사를 통해 국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바람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계획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친화형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현지방문하여 그 특성을 도출한 현장 사례조사 연구이다. 조사시설들은 2006년 일본 공적개호보험의 개정 이후 널리 확대된 시설들 중에서 지역밀착화의 개념을 내포한 시설들로서, 조사시설 선정시 노인복지시설관련 연구에 저명한 학자 2명(井上由起子, 山口健太郎)에게 다양한 거주유형을 가진 선진사례 6개소를 추천받았다.

조사내용은 시설관계자에게 시설 운영방침, 시설 개설에 이르는 경과, 지역과의 관계 형성 방법, 거주환경 특성 및 수발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이 거주환경을 사진촬영하면서 공간별 세부 디자인의 이유 및 장단점, 거주노인과 수발직원에게 바람직한 거주환경의 계획 요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5일-9일 이었으며, 조사대상의 시설명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1>, <Figure 1>.

Table 1. Research subjects

시설명	위치
A. 코렉티브하우스 아쿠라스타운	후쿠오카현
B. 매종도 아무르	후쿠오카현
C. 케어타운 타찌바나	후쿠오카현
D. 세료 논비리무라	아이치현
E. 모야이노우찌 미즈호	기후현
F. 주온켄쵸노 이에	교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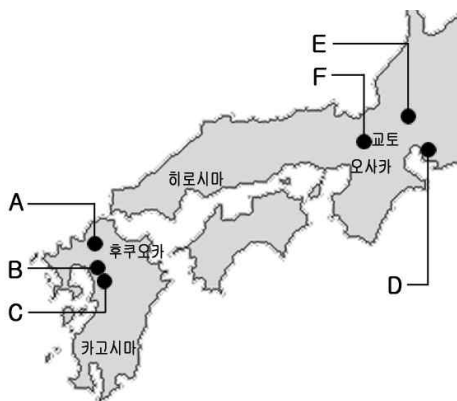


Figure 1. Location of the research subject

2. 문헌고찰

2.1 지역친화형 시설에 필요한 기본개념

1) 지역사회 계속거주 (Aging in Community)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과 주택에서 안정된 삶을 보내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지역과 밀착한 거주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보완하면서 노인들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의 생활특성을 고려한 시설계획이 중요하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화된 노인들은 거주환경이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합하면 노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차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거주시설이 친족이나 이웃과 가까운 곳에 있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노인들이 건강하고 독립된 생활을 지속하는데 안정적이며,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재택생활을 바라는 많은 노인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한 정책으로 자택에서 365일, 24시간 안심하며, 계속적으로 노인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Figure1>.



Figure 2. Image of aging in community

2) 다기능성 (Multi-Function) · 다양성 (Diversity)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단일기능만을 가지며, 지역사회의 재가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기능의 시설 개념이 필요하다. 거주노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증 또는 치매에 걸려 수발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주환경의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재

정적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설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복합 가능한 서비스 형태와 창설유형별(신설형, 기존시설활용형 등) 요구되는 시설 디자인 지침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은 현재 노인들의 변화하는 건강 및 사회적 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복합적인 서비스 형태를 가진 시설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역 노인들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Figure 2>. 즉, 독거노인이나 중증 노인의 거주를 위한 거주기능을 가진 시설서비스 외에도 방문간호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데이서비스, 지역교류, 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요양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에도 유효할 것이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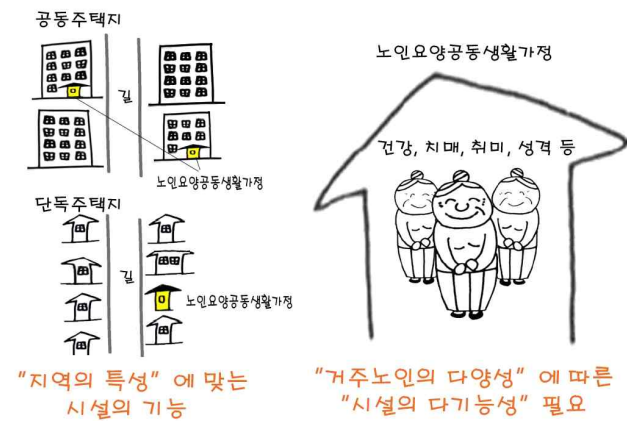


Figure 3. Image of multi-function and diversity

3) 세대통합(Intergeneration)

세대통합(intergeneration)은 미국에서 1960년대 중반 청소년과 노인과의 의도적, 사회정책적, 교육적 동기부여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개념이며, 세대 간의 교류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 층과 노인 상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모든 세대가 이익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부모나 배우자를 시설로 보낸다는 사실은 노인부양문제로 발생하는 가족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 부모나 배우자를 버린다는 죄책감의 감정이 양존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노인 당사자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시설입소를 꺼리게 되고, 부양가족의 입장에서는 노인을 자주 방문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노부모를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시설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지역친화형 모델은 거주노인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

키며, 가족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족이 느끼는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있어 노인거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주택 정책에 있어서의 노인의 평균치를 기초로 한 대응만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다른 인구의 고령화 상황, 주택 사정, 수발 서비스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주택·부동산 관련 사업자나 개호 관련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각각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파트너십에 의해 민간 활력을 최대한 발휘해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세대 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허브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2.2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는 국외 선진사례들을 통해 국내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내기 위한 점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 관련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최근 신설된 이유 등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연구는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시설유형인 노인공동생활주택과 그룹홈 등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여건과 노인복지정책을 충분히 감안하여 9명 이하의 소규모 거주환경의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 심층 있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관련 대표적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ong(2008)은 한국형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실내디자인 선호경향과 지침연구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계획시 안전과 편리성, 사회성을 추구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실내디자인 지침을 제안하였다. Ju(2008)는 한국 도심형 노후 공동생활주택 설계안 개발연구에서 소수의 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거점형 노인거주시설인 노후 공동생활주택을 제안하였다. So(2006)는 자립고령자의 공동거주에 있어서 거주공간과 행동범위의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화에 따라 자립가능한 단독세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룹리빙이라는 노인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립가능한 노인의 지속가능한 환경디자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Kim(2008)은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의 공간적 특성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룹홈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적인 측면인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치매노인 그룹홈의 공간구성 요소와 기능에 따른 공간요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Cho(2004)치매요양시설에 적합한 건축적 환경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치매요양소의 건축적 특성 분석과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이 적용된 사례들을 탐구하고 평가하여, 치매요양소 건축적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내외부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의료간호복지주택의 잠재적 효용성 연구에서는 다양한 재택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신주택 개념의 의료간호복지주택을 노인보건복지의 주요 자원이자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여러 국가의 관련사례와 현장을 비교·분석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주택들은 대규모 개발의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이나 시설 수준의 우수함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아직도 자신이 살던 정주지를 떠나 새로운 대규모 시설에 수용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은 노인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을 키워드로 한 지역친화형 노인거주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가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3. 조사결과 및 고찰

3.1 시설운영 및 일반사항

조사대상 6사례의 시설운영 및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A사례는 후쿠오카현 남부 다자이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후쿠오카시의 베드타운으로서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서 새로운 타입의 사회형 유료노인홈을 고안한 사례로서 다세대, 건강한 고령자, 요개호고령자, 터미널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으며, 고령자가 임종까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한 생활이 가능한 주택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B사례는 쿠마모토현과의 경계지역으로 후쿠오카현 남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기간산업의 쇠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병원을 모체로 하는 서비스부가형 고령자용 주택으로서 건물 내에는 방문개호사업소가 병설되어 있고, 동일 부지 내에는 인지증고령자그룹홈,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 인지증대응형통소개호, 지역교류스페이스가 있으며, 모두 의료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C사례는 저층

Table 2.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and general details

명칭	A	B	C	D	E	F
개원연도	2011.11	2010.01	2008.08	2009.04	2011.03	2005.04
용도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주거지역	제2종 중고층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부지면적	1,015㎡	2,216㎡	-	2,974㎡	1,778㎡	그룹홈 389㎡ 주간보호시설동 326㎡
연면적	1,342㎡	1,074㎡	1,522㎡	1,350㎡	911㎡	그룹홈 680㎡ 주간보호시설동 344㎡
층수 및 구조	지상3층/철근콘크리트, 목조	지상2층/목조	지상1층/목조	지상2층/목조	지상2층/철골조	그룹홈 지상3층 철골조, 주간보호시설동 지상2층/목조
시설유형	재택형 유료 노인홈	서비스부가형 고령자용 주택	노인거주시설	다세대 공생주택	그룹홈	치매노인 그룹홈
공간구성	-지역 교류공간 -침실, 거실/식당, 주방, 욕실, 탈의실	-지역 교류공간 -침실, 공용식당, 담화공간, 욕실, 탈의실	-지역교류공간, 테이서비스공간, 관리공간 -침실, 공용 거실/식당, 욕실, 담화공간, 중정	-지역교류공간, 테이서비스공간 -침실, 공용 거실/식당, 담화공간, 욕실	-테이서비스공간, 지역교류공간 -침실, 공용 거실/식당, 부엌, 담화공간	-테이서비스공간, -침실, 공용 거실/식당, 부엌/공용식당, 담화공간
주호수 (정원)	주호수 35호	주호수 30호	1유닛 (9명)	주호수 18호, 치매노인 그룹홈 1유닛(9명)	주호수 18호	2유닛 (18명)
병설기능	방문간호서비스, 지역교류	방문간호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호, 테이서비스(치매노인), 치매노인 그룹홈, 지역교류	주간 및 단기보호, 테이서비스(치매노인), 홈 헬프 서비스 개호 예방, 상담, 케어플랜서비스, 지역교류	치매노인 그룹홈, 주간 및 단기보호, 임대주택, 지역교류	주간보호, 지역교류	주간보호+단기보호, 주간보호, 방문, 상담등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가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밀착형의 복합시설로서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복수의 집합주택을 만들어 부지내에 단지를 형성함하고 있다. 특별양호노인홈동, 소규모다기능형거택개호동, 관리동, 지역교류센터동으로 구성된 분동형식을 취하고 있다. D사례는 아이치현 남부의 치타반도에 있는 공업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주변에는 산림이나 밭이 펼쳐져 있지만 최근 택지화도 진행 중인 곳이다. 생활협동조합을 운영모체로 하며, 다세대공동주택을 비롯한 인지증고령자

그룹홈, 소규모다기능형주택개호, 지역교류관, 찻집으로 구성된 복합형 건물로 배치되어 있다. E사례는 도심지에서 벗어난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주로 논과 단독주택이 있다. 1층에는 인지증대응형 통소개호(데이서비스)와 지역교류공간이 있고, 2층에는 9명의 개호유닛이 2개 확보되어 있는 그룹홈으로 구성된 고령자복지시설이다. F사례는 예부터 주택들이 즐비한 도심지의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들과 편의시설들이 있다. 이 곳은 2005년 그룹홈과 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2009년 인접 부지를 확보하여 소규모다기능형 주택개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6 곳의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국내에서 개발하게 될 노인요양생활가정을 위한 건축계획적 관점을 크게 지역과 친화되는 열린시설, 가정적인 분위기 창출, 거주노인과 수발하는 직원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지역과 친화되는 열린 시설의 계획요점

1) 지역주민의 접근을 유도하는 기능 복합

A사례는 카페테리아, 레스토랑, 갤러리, 도서코너, 마시지룸을, D사례는 세교 논비리무라는 찻집을 배치하여 지역 내의 친근한 시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도 이용할 수 있어 상호 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 즉 1층이나 2층의 저층에 설치하여 시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경로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사례, C사례, D사례, E사례, F사례의 경우 지역교류공간을 부지 내에 배치하여 시설의 프로그램 활동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회의 장소, 교류활동 장소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사례의 경우 지역교류공간 내부에 부엌을 설치하여 다과회나 식사회 등 다양한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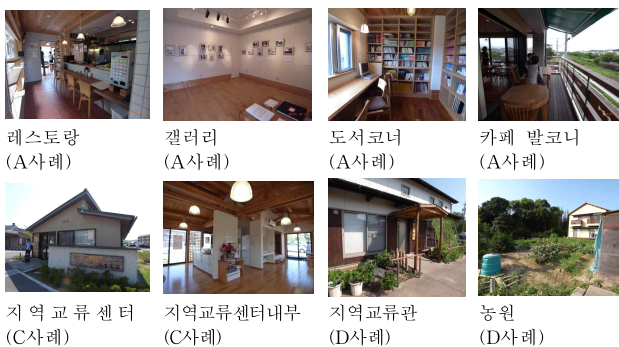


Figure 4. Diverse spaces for regional interchange

2) 다양한 요양서비스의 병설

조사시설 모두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설기능을 복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Medical service types of research subjects

구분	시설서비스 유형	재택서비스 유형
A	재택형 유료노인홈	방문간호/개호사업소
B	서비스부가형 고령자용 주택, 그룹홈	방문개호사업소, 소규모 다기능주택개호, 데이서비스
C	특별양호노인홈, 서비스부가형 고령자용 주택	방문개호사업소, 소규모 다기능주택개호, 데이서비스
D	다세대공생주택, 그룹홈	소규모다기능주택개호
E	그룹홈	데이서비스
F	그룹홈	소규모다기능주택개호, 데이서비스

특히, A와 D사례는 공적개호보험의 범주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주택유형을 운영하면서 자립, 경중, 중증의 건강상태가 다르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립가능한 건강할 때 입주하여 경중, 중증이 되더라도 타 시설로 옮기지 않더라도 동일한 직원과 거주노인, 동일한 시설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다.

3)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계획

조사시설은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노인)의 계속거주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노인복지시설은 주변의 단독주택지와 유사한 규모인 3층 이하로 건설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The external appearances and floor plans



3.3 가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계획요점

1) 시설적인 느낌을 최소화하는 면적과 공간구성

자립, 경증, 중증 등 거주노인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10명 내외가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단위를 기본모듈로 구성하여, 입소정원이 많은 시설이더라도 거주단위별로 나누어, 소규모 거주단위 내에서 취침,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완결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요양서비스는 수발직원과 거주노인이 1:1 대응이 기본인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거주단위별로 수발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얼굴이 익숙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아 거주노인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사적, 준사적(semi-private)/준공적(semi-public), 공적 공간이 단계적으로 구성되도록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사적공간인 침실은 개인의 고유영역으로, 복도나 담화코너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공적공간인 거실, 식당, 부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거주노인이 자신의 생활리듬에 맞춰 마음에 드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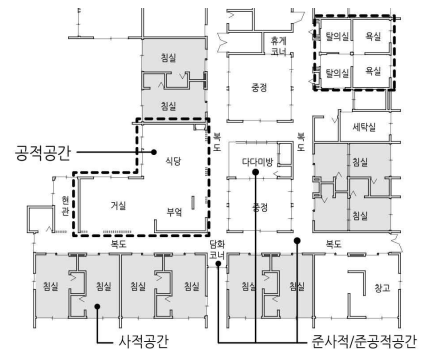


Figure 5. Example of the space organization(Case A)

2) 친근하고 차분함을 주는 인테리어

대부분의 조사대상 사례가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나무가 주는 따뜻한 느낌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 바닥, 천장에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는 일본의 일반적인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사례의 침실에는 다다미 생활에 익숙한 노인들을 위해 다다미방으로 계획하여 바닥에 이불을 깔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많은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면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시설적인 느낌을 주기 쉬운 천편일률적인 형광램프를 사용하는 사례는 없으며, 침실, 거실, 식당, 복도 등 실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등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사례들은 모두 소규모 거주단위라는 거주환경에서 보다 윤택하게 생활

그러나, 휴먼스케일을 벗어나는 거대한 규모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류공간이 있더라도 시설 내부로 지역주민이 들어가는 것에 저항감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A사례의 경우, 많은 침실을 몇 개의 거주단위별로 건물을 3개로 분절하는 것은 물론 갤러리나 레스토랑을 분동으로 계획하여 주변 주택가와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햇빛이나 바람 등 자연적인 요소를 실내로 유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C,D,F 사례의 경우도 건물을 분동으로 계획하여 마치 주택가와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동계획으로 인해 부지 내에 발생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는 주택가의 거리처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누구나 지나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시설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다.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인간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도록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테라스, 정원, 중정 등 옥외공간을 도입하고 있다.



Figure 6. Spatial composition to minimize a facility feeling

3.4 거주노인과 수발직원을 고려한 공간별 계획 요점

1)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공간

일본의 최근 노인거주시설의 정책방향은 1인실을 유도하고 있어, 사례시설의 침실은 모두 1인실(주호 개념의 경우 예외)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실이므로 거주노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하며 자신의 기호에 맞게 가구나 장식물 등 두어 침실을 꾸밈으로써 스스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 보다 안정감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C사례와 F사례의 경우 침실문을 개방하지 않고도 거주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도 측의 침실문 옆에 작은 쪽지창을 설치한 사례도 있으며, 사례시설의 모든 침실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거주노인에게 신경 쓰지 않고 편안히 세안, 양치질, 화장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C,D 사례의 경우 공용화장실 외에도 침실에 부속하여 별도의 개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와상 등 중증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잔존 신체능력을 활용하여 부속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주름문이나 커튼이 아닌 미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자립가능한 거주노인이 거주하는 A사례의 주호에는 미니키친도 배치하여 물을 끓여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어 자택과 같은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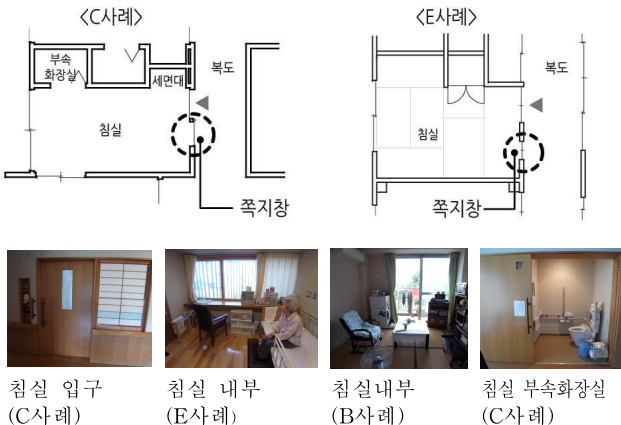


Figure 7. Examples of personal spaces

2) 타인과의 교류장소인 공동생활공간

A, C, E, F 사례의 경우 직원이 일하면서 공용거실에 있는 노인의 모습을 살필 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개방형 부엌을 설치하고 있으며, C 사례 소규모 다기능거택개호는 노인의 주방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특색이다. 간단한 요리에 참여하고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아일랜드형 조리대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낮은 개수대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사례시설들은 모두 침실이 1인실이 때문에 첩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식사 외에도 타인과의 교류, TV시청,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거주노인이 공용공간에 체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다다미 공간, TV를 시청할 수 있는 소파 공간, 혼자서 외부 풍경을 바라보면서 쉴 수 있는 의자 등의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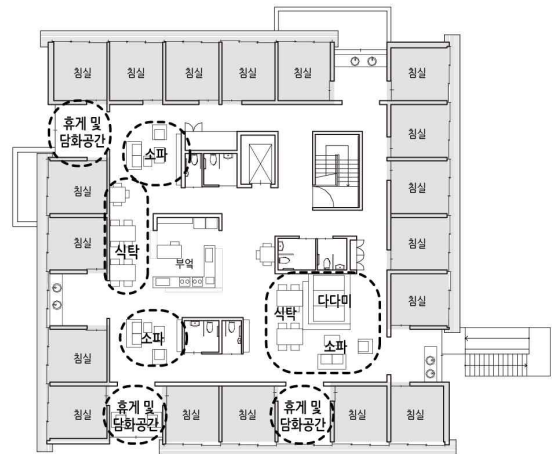


Figure 8. Examples of the public spaces(Case E : Floor Plan)

3) 청결하고 직원수발을 고려한 위생공간

사례시설은 침실 내에 부속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공용거실 등에 면해 복수의 공용화장실을 분산 설치하고 있으며, 최소 1개소 이상은 직원수발을 고려해 휠체어 대응이 가능한 여유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있다. 치매노인이 배설 실수를 하는 요인 중 하나는 화장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일본 전통주택 또는 일반가정집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으로 디자인하여 인지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발방침은 직원과 거주노인의 1:1 대응이 기본이므로, 탈의, 목욕, 착의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급적 수발직원 1명이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욕실과 탈의실

은 거대한 면적이 요구되지 않으며 거주노인 1명이 사용 가능한 크기의 욕조를 설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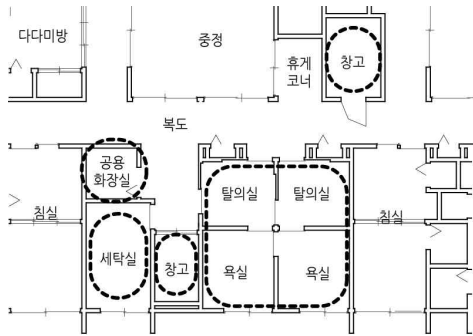


Figure 9. Examples of the sanitary space(Case A)

4) 생활영역으로의 확장 기능을 가진 이동공간

사례시설은 복수의 거주단위를 유닛별로 구분하더라도 유닛별로 개별 현관을 설치하여 거주단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도는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거주노인의 일상생활 영역의 확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창이 있는 조망이 좋은 위치에는 의자 등을 두어 담화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Figure 10. Examples of the corridor space

5) 가정적인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직원공간

최근 일본의 수발방침은 직원은 거주노인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존의 시설과 같이 직원이 체류하고 이용자를 감시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거대한 직원공간을 거주단위 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단위 내에는 다양한 서류를 보관하거나 기록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거주노인의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는 위치, 즉 부엌이나 공용거실 등의 한쪽에 설치함으로써 직원공간으로 인해 가정적인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Figure 11. Examples of the staff area

4. 결론

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노인의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시설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의 대규모화 및 단일화로 지역과 단절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일상생활권 내에 위치하도록 주택지 등에 입지하여 도보로 공원과 상점가 등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거주노인과 직원이 함께 지역 내를 산책하거나 인근 상점가에 장보러 가는 등 지역의 일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서비스 정보제공, 마을 길 청소, 지역자치회 참가 등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다가서는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이 친근한 지역시설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제도의 일부 개혁안을 통하여 노인의 다양한 거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지역밀착형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본의 경우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실버하우징,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소규모다기능주택개호 등 사회의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노인주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단순한 거주환경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병원 또는 타복지시설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과의 교류프로그램 실시 등 복합된 기능을 가진 노인주거형태가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의 모델개발시 시사점 및 건축계획적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한 시설로는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치매노인 그룹홈)로서 치매성 노인이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입욕, 배설, 식사 등 생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노인의 잔존능력으로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시설로, 치매노인 9명 이하가 거주하는 소규모의 지역밀착형 시설유형의 형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공되어야 할 주요 기능으로는 소규모 다기능형주택개호로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수발이 필요한 노인의 상황이나 희망에 따라 수시로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이 되어도 자신의 집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대표적인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노인요양공동가정의 모델을 개발시 반영해야할 건축계획요소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4.1 지역과 친화되는 열린 시설을 위한 제언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차집), 레스토랑, 갤러리, 도서코너,

마시지름 등의 지역교류공간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도 이용할 수 있어 상호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설기능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즉, 독거노인이나 중증 노인의 거주를 위한 시설서비스 외에도 지역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서비스를 병설하여 재택부터 시설거주까지 연속된 요양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유효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시설은 주변의 주택과 유사한 규모, 지역성이 있는 외부 마감재, 지붕형태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거대 스케일이 되지 않도록 건물을 적절히 분절 또는 분동하거나 입면에 변화를 주어 지역주민이 친근한 시설로 인식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4.2 가정적인 분위기를 창출을 위한 제언

10명 내외가 함께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단위를 기본 모듈로 구성하여, 입소정원이 많은 시설이더라도 거주단위별로 나누어 가정적인 분위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거주단위 내에서 취침, 식사, 목욕, 배설 등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 완결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요실을 사적, 준사적/준공적, 공적 공간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벽, 바닥, 천장에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는 일반적인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목재를 사용하면 나무가 주는 따뜻한 느낌으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설에 입주하게 되는 노인은 생활영역이 시설 내부로 한정되기 쉽고, 거주단위 내에서 일상생활이 완결되는 소규모 거주단위에서 나무나 생물 등을 감상하거나 계절감이나 날씨 등을 느낄 수 있고 기분 전환으로 활용되는 테라스, 정원, 중정 등 옥외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3 거주노인과 수발직원을 고려한 공간별 계획 측면

일본의 최근 노인거주시설의 정책방향은 1인실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실은 거주노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하며 자신의 기호에 맞게 가구나 장식물 등 두어 침실을 꾸밈으로써 스스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어 보다 안정감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침실이 1인실로 구성될 경우 침거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실 겸 식당은 식사 외에도 거주노인들의 자연발생적인 모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침실 내에 부속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공용거실 등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직원수발을 고려해 휠체어 대응이 가능한 여유 있는 크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발방침을 직원과 거주노인의 1:1 대응으로 할 경우, 욕실

과 탈의실은 거대한 면적이 요구되지 않으며, 욕조 주변에는 직원의 목욕수발을 위해 최소 2방향 또는 3방향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욕조보다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개호욕조를 사용하고 중증 노인의 목욕 수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형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발직원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용화장실, 욕실, 세탁실 등을 근접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관은 주택과 같은 친근한 규모와 개방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여 거주노인이 시설에 갇혀 있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유형이 건축계획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바람직한 거주환경의 디자인 지침과 모델의 유형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외 선진사례조사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에서도 시설의 협조하에 물리적 환경의 실태조사, 거주노인 및 수발직원의 행태조사, 지역주민의 요구조사, 타 노인복지시설과의 복합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1.Hong, Y.K.(2008). A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Guideline & Directives for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Korea, KIID Summer Conference Proceedings, 10(2), 158-177
- 2.Jo, Y.H.(2004),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Dementia Unit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7), 199-207
- 3.Ju, S. R., Lee, J. K. & Go, Y. Y(2008). Design for Senior Congregate Housing for Korean Urban Areas, KIID Summer Conference Proceedings, 10(2), 198-201
- 4.Kim, M.H.(2008), Space Characteristics of Group-hom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4(6), 319-328
- 5.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3), 한국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의료간호복지주택의 잠재적 효용성 연구
- 6.So, K. S.(2006). 자립고령자의 공동거주에 있어서 거주공간과 행동범위의 전개에 관한 연구 -그림리빙을 중심으로, 自立高齢者の共同住宅における居室空間と行動範囲の展開に関する研究 -グループリビングを中心として-Doctoral Dissertation, Tokyo University, Japan

접수일자 : 2016. 01. 10
 심사완료일자 : 2016. 02. 20
 게재확정일자 : 2016. 02. 23